

대학생의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암묵적 태도 측정 -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중심으로 -*

성 나 경 성 현 준 임 광 현
김 성 현 김 성 희 김 사 라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의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고자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경기도 소재 종합대학에서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244명(남성=71명, 여성=173명)이 참여하였다. 혐오단어 구성을 위하여 일간베스트와 위마드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남성혐오단어 25개, 여성혐오단어 25개, 중립단어 50개를 추출하여 IAT실험 프로그램(Pyscopy 3.6.7, 32bit, Python 3.6.7기반)을 구성하였다. 남녀의 혐오단어에 따른 반응시간을 D(Effect Size)로 산출하여 SPSS 18을 통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남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해 암묵적 연합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연합이 강하게 나타났다(남성 $M=0.47$, 여성 $M=-0.19$).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젠더혐오표현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젠더혐오, 남성혐오, 여성혐오, IAT, 암묵적연합검사, 성인초기, 대학생

* 본 연구는 2019년 5월 25일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구두발표논문을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 031-249-9198, E-mail : suejung@kyonggi.ac.kr

혐오표현이란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등을 근거로 증오를 표현하는 것으로써 그 집단이 열등하다는 편견을 지속적으로 퍼트리는 행위이다(박용숙, 2014). 혐오표현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가 된다. 혐오표현의 대상은 대체로 인종, 젠더, 종교, 소수의 성적체감 등으로 구분된다(박용숙, 2014). 그 중에서도 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은 다른 하위영역에 비하여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모욕으로 형사처벌 된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을 살펴보면 젠더, 이주자, 장애 등 차별의 표현이 총 127건이었고, 이 중 젠더혐오표현은 114건으로 전체 형사처벌 된 혐오표현의 95.8%를 차지하였다(박미숙, 추지현, 2017).

젠더혐오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성별의 변화 불가능한 기질적 요인(예: 남자, 여자, 임신, 정자, 난자 등)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예: 엄마, 아빠, 아줌마, 아저씨 등)을 혐오로 인식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고하며 혐오대상 집단에 대한 적대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낳는다(이승현, 2016). 또한 젠더혐오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욱 차별에 대한 원인을 젠더로 귀인하여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한다(김성희, 성나경, 성현준, 김성현, 김민선, 이연제, 권준성, 2019).

젠더혐오표현은 자신과 다른 젠더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것을 유머 혹은 해방으로 받아들이는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확산되고 있다. 젠더를 혐오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들은 뜻을 알지 못한 채 퍼져나갔고, 여성과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들이 생각 없이 남발되고 있다. 부산일보(2015)에 따르면 젠더혐오표현을 접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92.7%가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했으며, 최근 1주일 이내에 대중매체 및 일상에서 젠더 비하나 젠더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에 달했다(해럴드경제, 2015).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에서 시작되어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였던 시절부터 존재하였다. 1999년 군 가산점 폐지 논쟁을 기점으로 여성을 ‘김여사, 김치녀, 된장녀’ 등으로 나누며, ‘무능하고 특권을 요구하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여자’라는 비난이 본격화되면서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로 변화하였다(민미홍, 2017). 최근에는 머니로드(money road)라는 곡에서 “폐갈년들은 다 강간, 네 여친 집 내 안방”이라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범죄표현의 노래까지 발표되었다(한겨레, 2019).

반면,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5년 온라인에서 남성 혐오 커뮤니티가 탄생한 것을 기점으로 ‘미러링’, ‘한남충 패기’ 등 남성혐오 표현이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었다(이현재, 2016; 시사IN, 2019). 1999년 군가산점 폐지를 기점으로 20~30대 남성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성이 사회적 차별에 의해 사회적 약자”라는 주장이 시작하였다. 이에 2019년 3월 시사IN과 한국리서치에서 남성차별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차별문제가 심각한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7%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20대 여자(40%), 30대 이상 여자(61%), 30

대 이상 남자(54%)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젠더혐오는 자신과 다른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85.9%가 여성혐오와 성차별이 만연하다고 보는 반면에 남성은 62.9%만이 동의했다. 또한 여성에 대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표현(김치녀, 패륜녀 등)이 여성혐오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은 82.7%에 달했지만 남성은 58.6%만 동의하였다. 여성혐오에 비하여 남성혐오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비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혐오표현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고정관념 및 편견을 기반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김성희 등, 2019)와 시사IN의 설문조사를 참고한다면 남성혐오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남녀간 뚜렷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동일한 단어에 대해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박아란, 양정애, 2016).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젠더혐오의 근본에는 전통적 성(性)역할과 성(性)정체성을 지지하는 젠더에 대한 심리학적 본질주의(Phillips, 2010), 가부장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처벌로서의 접근(김문규, 2002), 여성혐오에 대한 저항(윤보라, 2014; 박무늬 2016) 등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과의 사소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키고, 상대 젠더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혐오하고 공격하려는 의도를 증가시킨다(Browne, Bakshi, & Lim, 2011). 이러한 젠더 혐오적 태도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매체에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추세이다(Henry & Powell, 2015).

태도에 근거한 젠더혐오

대상 대한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명시적 태도로써 직접적인 표현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태도이며, 또 하나는 암묵적인 태도로써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동화된 처리 과정에 의한 태도로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Greenwald & Banaji, 1995). 동일한 대상 혹은 집단에 대해 명시적, 암묵적 태도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두 태도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두 태도 간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없을 때, 둘째, 두 태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있지만, 두 태도 점수의 평균에서 차이가 클 때, 셋째, 두 태도가 행동 수준, 접촉 경험과 같은 다른 변인들과 서로 다른 관계성을 가지는 경우에 두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Greenwald & Nosek, 2006). 이러한 차이는 연령, 성, 인종 등 범주에 의한 편견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통해 발생한다. 인간은 부정적인 태도로 들어나는 것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편견을 보인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려고 하며, 스스로 편견 없는 사람으로 지각하기 위해 암묵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홍영호, 이훈구, 2001).

혐오는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줄 것이라 생각하여 배척하는 감정이다. 혐오를 느끼는 것은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방어하는 행동이다(최현철, 2017). 혐오표현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표적 대상에서 혐오감과 분노를 느끼며 증오를 표현하는 것으로(최현석, 2011), 혐오는 핵심혐오와 도덕적 혐오로 구분이 된다. 핵심 혐오는 맛, 분비물, 세균, 먼지 등 부정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써 발생하는 극도의

불쾌감을 의미한다. 그에 비하여 도덕적 혐오는 배신, 아첨, 위선 등과 같은 도덕적 위반 행위를 보일 때 경험하는 정서로써, 대체로는 암묵적 태도를 기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Haidt, McCauley & Rozin, 1994).

암묵적인 태도는 자동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적 사고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강하게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과 태도는 상황적 단서만 주어져도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나은영, 권준모, 2002). 즉 젠더혐오에 대한 태도를 행동으로써 실행하는 것에 있어 상황적 단서에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암묵적 사고에 따라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태도는 더욱 강하고, 더욱 빨리 행동 반응을 나타낸다(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이러한 암묵적 태도를 보여주는 실험은 인종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 졌다. 백인과 흑인의 사진을 본 후 마우스를 통하여 긍정과 부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우스에 센서를 부착하고 긍정단어를 선택하려 가는 궤적을 분석하였다(Wojnowicz, Ferguson, Dale, & Spivey, 2009).

흑인의 경우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 속도가 느렸으며, 이는 암묵적인 태도를 통해 고민한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높은 교육수준과 계몽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종차별 및 젠더혐오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무의식적인 상황에서는 인종차별을 인정한 암묵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 가설을 확인한 것이다.

젠더 혐오 또한 인종차별과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로서, 암묵적으로는 젠더 혐오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

적으로는 젠더 혐오 태도를 의도적으로 숨길 가능성이 크다.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젠더혐오의 근본에 어떤 기제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는 젠더혐오가 전통적 성역할을 지지하는 암묵적 태도에 기인할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성(性)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젠더 혐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 둘째, 기존 연구는 현 시대에 존재하는 젠더혐오와 관련된 상징이나 표현들을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 남녀의 젠더혐오에 대한 암묵적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한국사회의 젠더혐오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은 남성혐오표현에 비해 여성혐오표현에 강하게 연합되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여성혐오의 역사는 매우 긴 반면, 남성혐오가 사회적 논쟁이 된 것은 최근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의 젠더에 상관없이 여성혐오표현은 남성혐오표현에 비해 강하게 연합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은 남성혐오표현에 비하여 여성혐오표현에 더 불쾌감을 느낄 것이고, 남성은 여성혐오표현에 비하여 남성혐오표현에 더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시사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과 여성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성(性)이 차별받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시사인, 2019).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성별에 따라 젠더혐오단어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젠더 혐오에 대한 태도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이 현재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사

용되는 젠더혐오표현을 추출하고 이를 실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을 혐오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사이트 '일간베스트'(엄진, 2015)와 워마드(중앙일보, 2018)에서 젠더혐오단어를 추출하였고, 암묵적 연합 검사(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을 통해 젠더혐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초기 대학생들을 표집 하여 남녀 대학생이 젠더혐오 자극 단어를 보고 반응하는 시간의 차이를 통해 암묵적 연합의 정도를 비교하여 대학생들의 젠더혐오 암묵적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 종합대학의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 2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해 안내하고 1주일 간 연구 참여 안내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자를 모집하여 학교 내부의 2개의 컴퓨터실에서 실험을 진행되었다. 자료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거나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총 5개 영역의 실험 중 일부에만 참여한 경우와 개인 사정으로 실험에 참가할 수 없었던 인원을 제외하고 총 244명에 대하여 실험이 진행되고 분석되었다. 젠더 분포는 244명 중 남자가 71명(29.1%), 여자는 173명(71.0%)이었다. 최하연령은 만 18세, 최고 연령은 27세(SD = 1.92)로 구성되었고 평균 연령은 21.34세(SD=1.92)였다.

실험도구-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성차별이나 정체성과 같은 사회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선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참여자의 응답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한경혜, 선민애, 201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암묵적 연합검사이다(Greenwald et al., 1998).

IAT는 최초 Greenwald 외(1998)의 백인과 흑인에 대한 인종에 대한 편견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는 5단계의 구별된 과제로 구성되었는데, 화면에 표시되는 자극을 분류하는 과정으로써 참가자는 왼쪽과 오른쪽 위에 제시되는 범주를 보고 자극들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키보드에 지정된 자판을 누른다. 자극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선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사진)이 제시되며 두 번째 단계에선 긍정, 부정 단어를 제시하면 사진을 선택하는 상황을 주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개념이 조합되어 제시되어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자극을 선택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반전된 개념과 태도를 구별하도록 지시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의 반전된 개념과 반응을 구별하도록 지시한다. 참가자가 주어진 자극을 얼마나 범주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응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후 암묵적 연합검사는 자존감과 성(性) 자기개념 측정을 통해 내현적인 태도 식별에 타당한 도구라는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비록, IAT 검사가 지능이나 적성, 임상적 진단, 물리적 크기 등의 정확히 측정을 정확히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념적인 태도,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예측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Jost, 2019; Greenwald & Banaji, 1995). 젠더혐오는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큰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적 개념이면서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강한 편견 작용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개인의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젠더혐오를 측정하기 위해 IAT를 활용하였다.

장비와 자극

IAT실험 연구를 위한 단어구성은 일간베스트(엄진, 2015)에서 여성혐오단어 25개와 위마드 분석(중앙일보, 2018) 추출된 남성혐오단어 25개 총 50개의 젠더혐오단어를 추출하였다.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젠더 혐오단어들이

기 때문에 이것이 젠더혐오에 해당되는 단어인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심리학 교수 1명, 박사 과정생 5명과 석사과정생 1명이 논문과 신문기사에 수록된 혐오 단어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들이 단어 뜻을 몰라 응답하지 못할만한 단어들 제거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이 자극을 보았을 때, 젠더에 대한 혐오감을 느낄 만한 단어들 연구자들의 토의를 통해 선별하였다. 선별한 단어는 범죄심리학 재학 중인 박사 2명, 석사 3명에게 검토를 받아 최종적으로 젠더혐오단어 50개(남성혐오단어 25개, 여성혐오단어 25개)를 추출하였다. 젠더혐오단어를 제외한 중립단어는 비교적 참여자들이 선택하기 쉬운 형용사를 추출하여 50개로 구성되었고(중립단어의 예 : 용감한, 아름다움 등), 총 100개의 자극단어를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IAT)의 시행은 프로그램 언어인 Python을 기반으로 제작된 소프트웨어 Psychopy

표 1. 젠더혐오자극단어 리스트

남성혐오단어		여성혐오단어	
건빵남	씹치남	갈보	상패녀
겉레쫓	아がり초식남	김여사	성괴
군무새	자맹	김치녀	선김치
방관충	자맹이	꿀페미	스시녀
부확뜰	자지	낙태충	아스팔트 껌딱지
분탕자지	자지랄	된장녀	암배충
소라충	자지새끼	로리거유	엠창
소추	자지오패스	로린이	여머니
소추발각	자혐	름나무	좌존년
식초남	쫓놈들	만두녀	참젓
싸튀남	쫓레벌떡	맘충	탈코녀
한남또	쫓의 숙주	보테크	흉자
한남충		보험	

를 활용하여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실험에 활용하였다 (Peirce, 2007; 2009; Peirce, & MacAskill, 2018).

측정을 위해 대학 컴퓨터실을 활용하였고, 컴퓨터실의 각 장비는 Pentium 3.0, Samsung PC, LCD 모니터(해상도:1280×1024)와 108key 키보드로 구성되어있다. IAT를 활용한 실험방식은 크게 2가지로 활용되고 있다. Greenwald 등(1998)이 제시했던 최초형태의 IAT방식과, 후속연구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결과의 해석과 효과크기(D값)의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Karpinski(2006)가 개발한 SC-IAT(The Single Category IAT) 방식이다. 두 가지 IAT방식의 차이점은 연구참여자가 제시된 자극에 대하여 분류하는 선택지에 구분된 양쪽 범주를 모두 제시하는가, 혹은 한쪽의 범주만 제시하는가에 있다. 신희천 등(2009)은 SC-IAT방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에서 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는 '따뜻한+아빠'와 '차가운'의 형태로 구성된 선택지거나 혹은 '따뜻한+엄마'와 '차가운'의 형태로 구성된 아빠와 엄마라는 단어를 한 가지만 활용하여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IAT방식(Greenwald, 1998)의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제시된 자극 단어가 명확히 남성 혹은 여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활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어이고, 단어를 처음 읽는 사람도 해당 단어가 어느 성별을 가리키는 단어인지 대부분 유추할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각 성별에 따른 혐오단어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범주의 한쪽만 제시하는 SC-IAT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IAT 방식을 활용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자극에 제시되는 시간의 제한은 없었으며, 연구 참여자가 응답할 때까지 한번 제시된 자극이 화면에 지속되는 방식으로 총 5번의 실험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제시된 자극에 대하여 응답한 후, 다음 제시될 자극단어 전에 800ms의 간격을 두어, 참여자가 각 시행 후에 다음 시행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 1에서 남성과 여성의 혐오자극단어와 중립자극을 무작위로 배열하여 키보드의 E(남성)와 I(여성)키를 사용하여 혐오자극을 구분하였다. 실험 2에서는 무작위로 배열되는 혐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E: 유쾌, I: 불쾌). 실험 3에서는 선택의 문구(E: 남성, 유쾌 I: 여성, 불쾌)를 추가시켜 제시가 되었으며, 실험 4에서는 실험 1의 선택 문구를 반전(E: 여성, I: 남성)시켜 제시되었다. 마지막 실험 5에서는 실험 3의 선택 문구를 반전하여 태도와 인식을 선택하는 방법(E: 여성, 불쾌, I: 남성, 유쾌)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은 검은 배경화면 중앙에 하얀색으로 자극단어(혐오/중립)를 보고 상단 왼쪽과(E버튼) 오른쪽에(I버튼) 표시되는 선택지 중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험 2는 기존 연구들에서 추출한 혐오단어들이 실제로 피험자들에게 혐오단어로 느껴지는지, 단어 선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 실험 1과 4는 연습시행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실험 3과 5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험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한 뒤('남, 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실험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약 20~

30분)을 안내하였다. 강의실에서 컴퓨터 전산실(이동거리 약 5분)로 이동하여 실험이 진행되었고, 이동 한 후 연구자가 아닌 조력자를 통하여 실험에 필요한 프로그램 실행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실험은 지시문을 읽은 후 알맞은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조력자는 실험 조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프로그램 작동 관련)에 실험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였다. 실험 중 단어의 뜻 혹은 실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질문에 대해선 '단어를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시오'로 일관적인 대답을 하였다. 실험은 총5가지로써 하나의 실험이 끝날 때마다 지시문이 제공되었으며, 지시문(그림 1)에 따라 실험(그림 2)가 진행되었다.

측정 방법 및 도구

본 연구에서는 Pyscopy 3.6.7(Python 3.6.7 기반)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검사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검사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험 후 SPSS 18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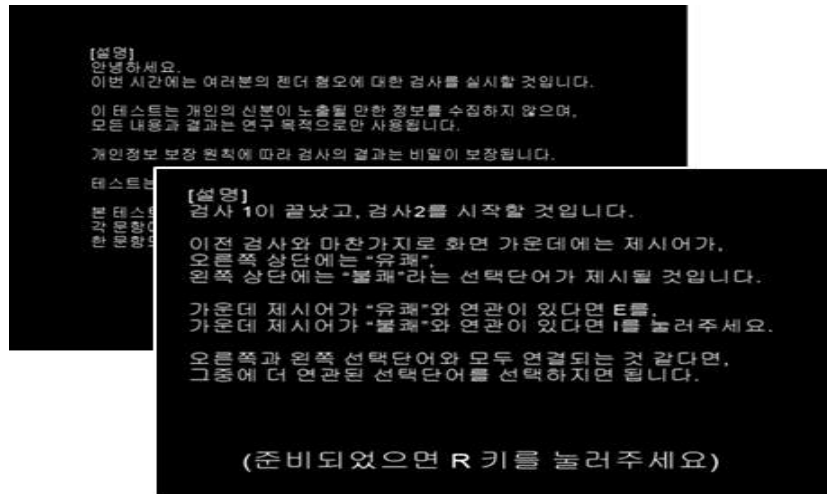


그림 1. IAT 실험을 위한 실행 지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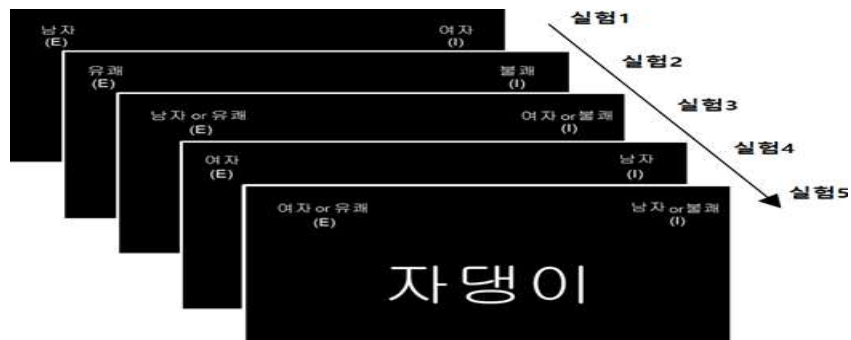


그림 2. IAT 실험화면

주요 분석 방법은 IAT실험에서 제시된 자극단어(젠더혐오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을 비교하였다. 측정된 반응시간 자료를 일반적으로 IAT 연구에서 사용하는 D값(Effect Size) 산출방식을 활용하여 남성혐오단어와 여성혐오단어에 따른 효과크기 값을 산출하였고, 이를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

참여자들에게 IAT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데이터의 혐오자극단어의 타당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실험 2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수집한 혐오단어에 대하여 몇 명의 피험자가 '유쾌'와 '불쾌'의 선택지를 선택하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2에서 수집된 50개의 혐오단어(남성혐오단어 25개, 여성혐오단어 25개)에 대하여 총 244명(남성 71명, 여성 173명)이 제시된 선택지(유쾌, 불쾌) 중 선택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제시된 혐오 단어에 대하여 '유쾌'로 선택한 피험자 수의 평균은 15.4(명), 표준편차 7.84이고, '불쾌'로 선택한 피험자의 수의 평균은 226.94(명), 표준편차 7.74이다. 따라서 각 선택지(유쾌, 불쾌)에서 95%신뢰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30.56(명) 이상이 선택한 '한남충'은 불쾌단어로 보기 어려

표 2. 혐오단어 실험2 선택지(유쾌, 불쾌) 평균 (단위: 명)

남성 혐오단어	'유쾌' 선택 피험자 수	'불쾌' 선택 피험자 수	여성 혐오단어	'유쾌' 선택 피험자 수	'불쾌' 선택 피험자 수
건빵남	16	226	갈보	6	236
걸레쫓	15	227	김여사	23	219
군무새	30	213	김치녀	10	233
방관충	18	224	꿀페미	8	234
부확뜰	24	218	낙태충	5	237
분탕자지	8	234	된장녀	12	230
소라충	12	230	로리거유	5	237
소추	26	217	로린이	12	230
소추발각	21	221	룸나무	17	225
식초남	20	222	만두녀	15	227
싸튀남	13	229	맘충	12	230
쌈치남	15	228	보테크	5	237
아가리초식남	26	216	보험	3	239
자땡	19	223	상패녀	3	239
자땡이	18	224	성괴	10	232

표 2. 혐오단어 실험2 선택지(유쾌, 불쾌) 평균 (계속)

남성 혐오단어	'유쾌' 선택 피험자 수	'불쾌' 선택 피험자 수	여성 혐오단어	'유쾌' 선택 피험자 수	'불쾌' 선택 피험자 수
자지	23	219	썩김치	7	236
자지랠	28	215	스시녀	10	232
자지새끼	15	227	아스팔트껌딱지	7	235
자지오펙스	16	226	암배층	4	238
자협	21	221	엠택	6	236
좃놈들	13	229	여머니	18	224
좃레벌떡	23	219	좌좀년	4	238
좃의숙주	21	221	참젓	12	230
한남또	29	213	탈코너	27	215
한남층	33	210	흉자	16	226
평균	15.2	226.94	표준편차	7.84	7.74

(단위: 명)

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두 번째는 양립불가능 한 조건 하에서 반응 속도가 양립가능 한 조건 하에서의 반응속도보다 느리다고 가정하고, 양자 간의 차이(양립불가 조건의 반응속도 - 양립가능 조건 반응속도)를 계산하여 제시된 자극단어에 대한 혐오인식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 3에서 양립불가능 한 조건으로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싸튀남'이 자극어로 제시되었을 때, 선택지로 '남성 or 유쾌', '여성 or 불쾌'가 제시된다. '싸튀남'이라는 제시자극은 남성에게 대한 불쾌 자극이기 때문에 '남성 or 유쾌', '여성 or 불쾌'가 결합된 선택지는 양립불가능한 선택지이다. 두 개의 선택지 모두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 반응시간이 양립가능한 선택지보다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반면 실험 5에서 자극어로 '싸튀남'이 제시되는 경우, 선

택지로 '여성 or 유쾌', '남성 or 불쾌'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남성 or 불쾌'는 '싸튀남'과 양립가능하기 때문에 실험 3에 비하여 반응시간이 빠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D값을 산출하였다.

남성혐오단어 D값 산출식 :

$$\text{실험 3(양립불가능)} - \text{실험 5(양립가능)}$$

여성혐오단어 D값 산출식 :

$$\text{실험 5(양립불가능)} - \text{실험 3(양립가능)}$$

즉 본 연구에서의 D값이 클수록 제시어와 조건과의 관계가 대한 불쾌, 불편의 연합이 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D값이 작을수록 제시어와 조건과의 관계가 불쾌, 불편의 연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혐오단어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을 D(Effect Size)로 산출하여 남성과 여성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남자혐오에 대한 D값은 실험 3에서 실험 5의 반응시간을 뺀 값이며, 여자혐오에 대한 D값은 실험 5에서 실험 3의 반응 시간을 뺀 값이다. 남성과 여성혐오에 대한 D값 산출식이 다른 이유는 본 연구에서의 실험 3의 선택은 'E=남성, 불쾌', 'I=여성, 유쾌'이며, 실험 5는 'E=여성, 불쾌', 'I= 남성, 유쾌'였다. 따라서 IAT의 표준 연구방식에 따르면 양립 불가능한 조건의 반응시간에서 양립 가능한 조건의 반응시간을 뺀 값을 그 D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혐오단어에 대하여 유쾌조건에서 불쾌조건을 뺀 값을 그 D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남성혐오단어의 경우에는 실험 3(남자 or 유쾌)에서 실험 5(남자 or 불쾌) 값을 뺀 것을 D값으로 사용하고, 여성혐오단어의 경우에는 실험 5(여자 or 유쾌)에서 실험 3(여자 or 불쾌) 값을 뺀 것을 D값으로 사용한다.

남, 여 대학생의 집단 간 차이

남성과 여성 대학생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의 남성과 여성으로 독립변인을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혐오자극단어의 암묵적 연합검사의 D(Effect Size)를 추출하여 전체 혐오자극단어의 반응시간을 확인한 결과 남자혐오단어와($t=-3.976, p<.001$) 여성혐오단어($t=3.393,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혐오자극단어를 여성혐오, 남성혐오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를 표 3로 기술하였다.

혐오자극과 젠더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여자 대학생이 남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해 불쾌하며, 덜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남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해 더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M=0.24, 여성 M=0.56). 남자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여자 대학생에 비해 여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해 불쾌에 강하게 연합된 것으로 나타났으

표 3. 혐오자극단어에 대한 남,여 간 차이

구분	남(N=71)	여(N=173)	t
	M(SD)	M(SD)	
남자혐오단어 Effect Size	0.24(.56)	0.56(.57)	-3.976***
여자혐오단어 Effect Size	-0.03(.50)	-0.25(.44)	3.393***

*** $p<.001$, 단위: 초(s)

며,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에 비하여 여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하여 유쾌에 강하게 연합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M=-0.03, 여성 M=-0.25). 즉 남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한 암묵적 인식은 남자 대학생이 강하게 연합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해서 여자 대학생들이 암묵적으로 더 강하게 연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집단(남/여) 수준의 분석에서는 남성혐오자극단어는 여성혐오자극단어에 비해 더 불쾌하고, 불편하며, 덜 익숙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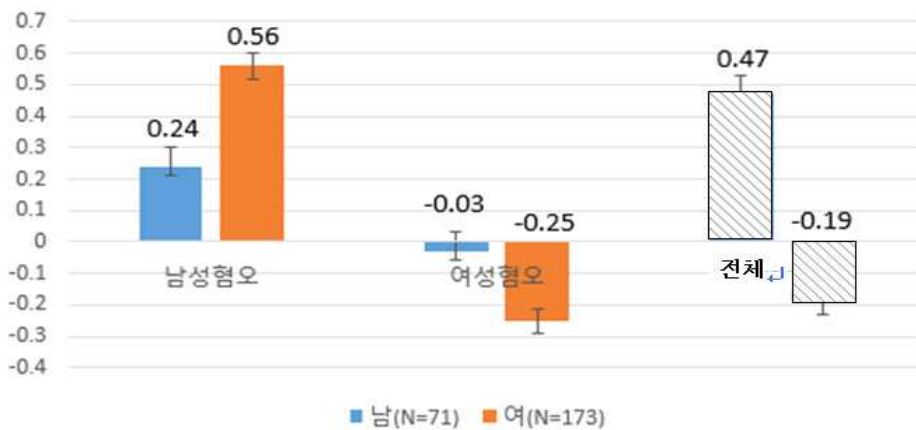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남성혐오단어 M=0.47, 여성 혐오단어 M=-0.19). 즉, 여성혐오자극단어는 남성혐오자극단어에 비해 덜 불쾌하고, 덜 불편하며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한 암묵적 연합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성 혐오자극단어와 남성혐오자극단어의 연구 참여자 전체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남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한 태도보다는 여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덜 불쾌하고, 더 강하게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표 4. 남성, 여성혐오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구분		M(SD)	df1(df2)	F
남성혐오	남	0.24(.56)	1(242)	15.810***
	여	0.56(.57)		
	합계	0.47(.59)		
여성혐오	남	-0.03(.50)	1(242)	11.512***
	여	-0.25(.44)		
	합계	-0.19(.47)		

*** $p < .001$, 단위: 초(s)



단위: 초(s)

그림 3. 남자혐오표현과 여자혐오표현 단어의 D값 평균

는 남자혐오단어와 여자혐오단어의 따른 D값의 평균을 나타낸 그림이다.

논 의

최근 젠더 혐오에 대한 이슈가 혐오표현에서 차별옹호, 증오 선동, 범죄로 나타나는 등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김성희 등, 2019).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각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위해서는 젠더혐오에 대해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20대 남녀 대학생의 젠더혐오태도를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서 살펴본 연구로써 연구결과는 첫째, 온라인상에 퍼져있는 여성혐오표현은 남녀 대학생 모두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남성혐오표현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남성혐오단어 $M=0.47$, 여성혐오단어 $M=-0.19$). 이는 연구에 참여한 남녀 대학생 모두 여성혐오자극단어는 암묵적 연합이 강하고, 남성혐오자극단어는 암묵적 연합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녀 대학생은 남성혐오자극단어에 노출되었을 때, 불편하고, 불편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며, 여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편하지 않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온라인에서 퍼져있는 남성혐오에 대해 “남근질서에 대한 분노와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만 있을 뿐, 남성혐오는 없다”는 윤지영(2015, 재인용)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젠더혐오에 대한 젠더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각 젠더에 따른 혐오단어에 대한 인식은 젠더에 맞추어 인식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남성혐오 : $M = 0.24$ (남), 0.56 (여), 여성혐오 : $M = -0.03$ (남), -0.25 (여)). 즉 각 젠더에 따라 젠더혐오 인식은 대립되고 있는 젠더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연령, 정치적 성향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건우, 이정읍, 2018). 또한 성인초기 20대에게서 나타나는 경쟁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자신이 소속된 성(性)이 차별받고 있고, 다른 성(性)이 우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행조사 결과(시사IN, 2019)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젠더혐오표현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방법을 보완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혐오에 대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주로 명시적인 접근으로써 혐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박건우, 이정읍, 2018; 조선아, 유계숙, 2018; 승재현, 2016; 허민숙, 2017).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명시적인 접근이 아닌 암묵적 인식과 태도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활용하여 젠더혐오 표현의 암묵적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둘째, 혐오표현에 가장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20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젠더혐오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은 20대 남성이다(시사IN, 2019).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젠더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내적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20대 남녀 대학생 집단을 표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한국사회의 20대는 현재 젠더혐오논쟁

을 가장 격렬하게 하는 집단으로 30대 이상의 집단에 비하여 20대 남자 집단은 “남성차별은 심각하다”에 68.5%가 응답한 반면, “여성차별은 심각하다”에 23.6%만 응답하였다. 반면, 20대 여자 집단은 “여성차별 문제는 심각하다”에 85.4%에 응답하였고, “남성차별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에 56.2%가 응답하였다(시사IN, 2019). 즉, 자신이 소속된 성(性)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 성(性)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여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간극이 큰 것이다. 상대 성(性)이 능력에 비해 혜택을 받아 자신이 속한 성(性)집단이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한다면 젠더혐오태도와 젠더혐오표현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김성희 등, 2019; 시사IN, 2019). 이러한 배경으로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측면에서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연구였다.

본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의 비율을 맞추어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71명, 여성 173명을 대상으로 젠더혐오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를 D값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젠더혐오단어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D값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정상분포를 이루어 수집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Rusticus & Lovato(2014)에 따르면 남녀 비율의 불균형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의 비율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젠더와 연령의 젠더 혐오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

으로 젠더혐오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는데, 20대, 30대 이상 남녀의 성차별에 대한 의식 차이가 확연하다는 조사(시사IN, 2019; 한국리서치, 2019)의 결과를 비추어볼 때,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연령별, 성별, 젠더 혐오차이를 살펴보면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연합검사만을 통하여 남녀대학생의 젠더혐오태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젠더혐오는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큰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즉 두 태도간의 간격이 발생하는데(Greenwald & Banaji, 1995) 이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성희, 성나경, 성현준, 김성현, 김민선, 이연제, 권준성 (2019). 혐오표현의 이해 및 특성에 대한 고찰: 해외 혐오표현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8(1), 3-26.
- 김문규 (2002). 여성혐오와 가부장주의 비극: 타이투스 안드로니커스, *Shakespeare Review*, 38(4), 877-904.
- 김유정 (2008). 웹 개인미디어에서의 사이버 자기표현. *한국언론학회*, 52(6), 78-99.
- 나은영,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 사투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 사회 및 성격*, 16(1), 51-74.
- 루 인 (2013). 젠더, 인식. 그리고 젠더폭력 : 트랜스(젠더)페미니즘을 모색하기 위한 메모. *여성학논집*, 30(1), 199-233.
- 미디어오늘 (2019). 유튜브 속 혐오표현, ‘젠더’

- 교육으로 속아내다. <http://www.mediar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307>, (2019.04.03 인출).
- 민미홍 (2017). 남자고등학생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건우, 이정읍 (2018). 한국인의 여성혐오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09-129.
- 박무늬 (2016). 혐오에 맞서는 혐오 :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젠더 담론.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미숙, 추지현 (2017).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73.
- 박아란, 양정애 (2016). 혐오표현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미디어이슈, 2(7), 1-14.
- 박용숙 (2014).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 경향. 강원법학, 41(1), 467-509.
- 박혜진 (2012). 형법상 젠더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간죄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4(1), 37-72.
- 백근영, 서영석 (2011). 여성 직장인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일몰입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555-571.
- 부산일보 (2015). 왜 2030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게 되었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0704000030>, (2019.02.19. 인출)
- 세계일보 (2019). 男서럽 vs 女억울, '젠더갈등' 결국 모두가 피해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90203000637?OutUrl=naver>, (2019.04.03. 인출)
- 손은정 (2006). 대상화 경험이 여성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399-417.
- 승재현 (2016). 젠더혐오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 여성혐오 범죄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8(2), 35-64.
- 시사IN (2019). '반(反) 페미니즘' 전사들의 탄생. 시사IN, vol(605), 16-25.
- 신상숙 (2018).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 페미니즘연구, 18(1), 267-301.
- 신희천, 한소영, 양옥성 (2009). IAT를 이용한 부모-자녀 관계 만족의 암묵적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369-396.
- 엄진 (2015).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연합뉴스 (2016). 불만 쌓인 남성들...과반이 여성비하 표현에 '공감'.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815985. (2019.02.19. 인출).
- 윤보라 (2014). 온라인 페미니즘, 여성이론, 30호, 166-180.
- 윤지영 (2015). 전복적 반사경으로서의 메갈리아 논쟁 : 남성 혐오는 가능한가, 한국여성철학, 24, 5-79.
- 오자영 (2009). 자의식과 태도중요성이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의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미정 (2018). 젠더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 친밀한 관계의 여성 살해 후 자살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73, 119-148.
- 이소현 (2007). 아동성폭력범의 소아기호적 성

- 향 측정 : 암묵적 연합 검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승현 (2016).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은주, 박준모 (2016). 성별과 노출 빈도에 따른 여성혐오 발언 규제 지지도의 차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3(2), 265-304.
- 이현재 (2016).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44-45.
- 조선아, 유계숙 (2018). 서울시 남자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혐오에 미치는 영향: 결혼의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1), 86-119.
- 중앙일보 (2018). “폭력엔 폭력, 억압엔 억압... 피해자가 될 바엔 가해자가 되겠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222/93410179/1> (2018.12.22. 인출).
- 최현석 (2011). 인간의 모든 감정. 서울 : 서해문집.
- 최현철 (2017). 혐오, 그 분석과 철학적 소고. 철학탐구, 46, 176-199.
- 한겨레 (2019). “혐오가 스웨그?” 이번에는 힙합 가수 김효은 여혐 가사 도마 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8155.html. (2019.04.03. 인출).
- 헤럴드 경제 (2015). “여자는 안돼” “남자는 잘못됐다” ... 댓글창 이성혐오 전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22000951>. (2019.02.19. 인출).
- 허민숙 (2017).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한국여성학, 33(2), 77-105.
- 한경혜, 선민애 (2017). 한국 어린이의 노인에 대한 태도: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7(2), 475-496.
- 홍영호, 이훈구 (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85-204.
- Bach M. A. (1997). Note on luminance calibration of raster-scan cathode-ray tubes: temporal resolution, ripple, and accuracy. “Spat Vis”, 10:485-9.
- Bargh, J. A., Chen, M., & Burrows, L. (1996).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230-244.
-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4), 354-364.
- Browne, K., Bakshi, L., & Lim, J. (2011). ‘It’s Something You Just Have to Ignore’: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Contemporary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 Safety Beyond Hate Crime Paradigms. *Journal of Social Policy*, 40(4), 739-756.
- Cunningham, W. A., Preacher, K.J., & Banaji, M. R.(2001). *Implicitattitudemeasures: Consistency, st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Psychological Science*, 12(2), 163-170.
- Esses, V. M., Jackson, L. M., & Armstrong, T. L.(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724.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013-1027.
- Fiske, S. T.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57-411. New York, NY, US: McGraw-Hill.
- Forsyth, D. R.(2010). Group Dynamics. 5th ed. 남기덕 외(역). 『집단역학』. 서울: 쉐게이저 러닝코리아.
- Fredrickson, B. L., & Rob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Greenwald, A. G., & Banaji, M. R.(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4, 1446 - 1480.
- Greenwald A. G, & Nosek. B. (2006). Attitudinal Dissociation. In Petty, R. E., Fazio, R. H., & Brinol, P (Eds), *Attitudes : Insights from the New Implicit Measures*. Hillsdale, NJ : Erlbaum.
- Haidt, J., McCauley, C., & Rozin, P.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disgust: A scale sampling seven domains of disgust elici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5), 701-713.
- Henry, N., & Powell, A. (2015). Embodied harms: Gender, shame, and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21(6), 758-779.
- Jost, J. T. (2019). The IAT is dead, long live the IAT: Context-sensitive measures of implicit attitudes are indispensable to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8(1), 10-19.
- Karpinski, A., & Steinman, R. B. (2006). The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as a measure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6-32.
- Kerns, J. G., & Fine, M. A. (1994). The relation between gender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Do gender role attitudes mediate this relation?. *Sex Roles*, 31(5-6), 297-307.
- McCall, C., Blascovich, J., Young, A., & Persky, S. (2009). Proxemic behaviors as predictors of aggression towards Black (but not White) males in an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Social Influence*, 4(2), 138-154.
- Parrott, D. J., Peterson, J. L., Vincent, W., & Bakeman, R. (2008). Correlates of anger in response to gay men: Effects of male gender role beliefs, sexual prejudice, and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9(3), 167.
- Peirce, J. W. (2007). PsychoPy - Psychophysics software in Python. *Journal of Neuroscience Methods*, 162(1-2): 8-13.
- Peirce, J. W. (2009). Generating stimuli for neuroscience using PsychoPy. *Frontiers in Neuroinformatics*, 2(10), 1-8.
- Peirce, J. W. , & MacAskill, M. R. (2018). *Building Experiments in PsychoPy*. London: Sage.

- Peirce, J. W., Simpson, S., MacAskill, M. R., Höchenberger, R., Sogo, H., Kastman, E., & Lindeløv, J. (2019). PsychoPy2: experiments in behavior made easy. *Behavior Research Methods*, 10. 3758/s13428-018-01193-y.
- Phillips, A. (2010). What's wrong with Essentialism?. *Distinktion: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theory*, 11(1), 47-60.
- Schmidt, R. A. (1975). A schema theory of discrete motor skill learning., *Psychological Review*, 82(4), 225-260.
- Schneider, D. J. (2004). Distinguished contributions in psychology. The psychology of stereotyping.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Shayna A. Rusticus & Chris Y. Lovato. (2014). Impact of Sample Size and Variability on the Power and Type I Error Rates of Equivalence Tests: A Simulation Study. *A peer-reviewed electronic journal*, 19(11). 1-10.
- Unkelbach, C., Forgas, J. P., & Denson, T. F. (2008). The turban effect: The influence of Muslim headgear and induced affect on aggressive responses in the shooter bias paradig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5), 1409-1413.
- Wojnowicz, M. T., Ferguson, M. J., Dale, R., & Spivey, M. J. (2009). The self-organization of explicit attitudes. *Psychological Science*, 20(11), 1428-1435.
- 1차원고접수 : 2019. 07. 20.
심사통과접수 : 2019. 09. 09.
최종원고접수 : 2019. 09. 28.

Implicit Attitude Towards Gender-Based Hate Speech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

Seong Na kyong Sung Hyun jun Leem Gwang hyun
Kim Seong Hyun Kim Sung Hee Kim Sa ra Lee Soo jung

Kyonggi Universite

The present study conducted Implicit Association Test(IAT) measures to measure implicit attitudes toward gender-based hate speech. A total of 244 undergraduates(71 male, 173 female), who attended a liberal arts lecture at the university in Kyonggi-do participated. First, the researchers created a list of hate words, using extracted words that were considered misandry($n=25$), misogyny($n=25$), and neutral($n=50$) from previous research which had analysed 'Ilbe Storage', and 'Megalian', for producing IAT programme. D-score(Effect Size) represents response time of the hate words by each gender, was computed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rough t -test,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articipants showed strong implicit association with the misogynist words, whereas the misandrist words were not strongly found(male $M = .47$, female $M = -.19$). In conclusion, the researchers explored university students' implicit attitudes toward gender-based hate speech, and discussed future research to understand gender-based hate speech in more depth.

Key words : Gender-Based Hate Speech, Misandry, Misogyny, IAT(Implicit Association Test), Young Adults, Undergraduate Students